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헌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31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 성탄절 메시지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퍼지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신문사마다 금년의 국내외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그 소식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라 해도 나 개인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우리들에게 최고의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 것입니다.

성탄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첫째로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민족에게 국한되는 소식이 아니라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탄절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큰 기쁨이란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때 찾아옵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의미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근본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큰 기쁨은 약속이 성취될 때에 찾아옵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수 많은 언약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천여년 전 12월 25일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큰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인류에게 평화가 올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에게 평화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해야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해야 하고, 인간과 자연이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눅2:11). 다시 말해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의미의 문제가 주님이 오심으로 해결되었으며,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축복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은 현재적으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92년도 성탄절을 맞아 충헌의 모든 성도들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는 평화를 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92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당회장 신성중 목사

우리 교회 김영삼 장로 대통령 당선

“기도해준 성도 및 전국 교회에 감사”

우리 교회 시무장로인 김영삼 장로(65세)가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영삼 장로는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6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로서는 큰 기쁨의 경

사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당선된 김영삼 장로는 “그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며 밀어주신 충헌 식구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하고, “앞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미력이나 마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 장

로는 우리 교회 제18대 장로로서 장학 위 원, 선 교 위 원으로 봉사해왔으며, 소속교구는 제6교구이다.



▲ 김영삼 장로

성탄축하예배

25일 오전 9시와 11시에 드려

오전 5시 30분에는 새벽기도회, 오후 5시에는 교회학교 주관 음악예배도

금년도 성탄축하예배는 오는 25일 오전 9시와 11시에 두 차례 드리고, 오전 5시에는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린다.

이날 성탄축하예배에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설교를 하며,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설교한다.

한편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성탄 전날인 24일에는 중등1부에서 오후 3시에 아멘홀에서 크리스마스 잔치를 개최하고, 고등부도 만나

홀에서 코이노니아의 밤을 개최한다. 또한 성탄절 당일인 25일에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본당에서 오후 5시에 성탄축하음악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번 성탄절에는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학부 고3 신입생 환영회 오는 28일과 29일에

대학부는 오는 12월 28일과 29일 충헌기도원에서 고3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93 여는 마당 고3 신입생과 함께'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될 고3 신입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주최측에서는 고3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라고 있다.

교구일꾼 임명 오늘 4부예배시간에

93년도 교구일꾼 임명식이 오늘 4부예배 시간에 있다.

오늘 임명받는 각 교구의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구역장, 구역장, 권찰들은 겸손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한 해 동안 교구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고 헌신, 봉사하게 된다.

93년도 신년축복성회 개최

93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교회는 새해 벽두부터 은혜의 잔치를 마련하였다. 충헌기도원 주관으로 새해 1월 4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충헌기도원에서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한다.

“영육에 축복받자”라는 주제

아래 김창인 목사, 신성중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성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해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금요특별집회 안내

성탄절인 12월 25일과 설날인 1월 1일에는 금요특별집회를 갖지 않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충현강단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마9:18~26)

신성종 목사

1. 서론

요즘은 사람들의 인사가 건강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건강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종류도 많지만 병 종류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지금도 치유해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능력을 깨달으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본문에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회당장인 아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혈루증 환자인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49)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마가복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四)복음서는 각각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강조의 차이점이고, 또 묘사하려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8장에는 회당장인 아이로의 딸이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의 장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자마자 그

세번째는,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잔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다는 것은 실제로 죽긴 죽었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죽음은 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심을 사키면서 계속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다시 살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섯번째는, “달리다굼”이라는 것입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녀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손에서 능

것을 기다리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혈루증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직원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가시던 도중, 혈루증에 걸려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고침을 받은 비결이 본문에 나옵니다.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마9:20, 21)

그 여자가 고침을 받은 비결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는 수줍음의 결과입니다. 또 부정한 사람은 남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겹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성물 숭배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옷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옷이라도 만지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겠다는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여자는 마침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8장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과 비

주님께로 나와 기도하며 손을 내밀 때 치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먼저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이나 사달림을 당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이것 저것 다하다가 안되면 예수님 앞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2.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마9:18)

한 직원이 자기의 딸이 죽자 예수님께로 달려와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직원이 왔다고 했지만,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 두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딸은 아직 죽지는 않았고 죽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눅8:

당일에 장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시체가 빨리 썩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슬픔을 복돋우기 위해서 최소한 피리부는 사람과 우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속옷을 집에서 찢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겹옷을 적어도 30번 이상을 찢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이로의 집에서 일어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아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라는 것입니다. 한 직원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노예만이 하는 자세입니다. 회당장 아이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딸을 살리게 된 첫번째 원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번째는,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생각해보면 회당장의 믿음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만 한 번 해주시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며,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면 능력을 베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음식도 주실 수 있을 텐데 주시지 않은 이유는, 능력을 베풀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할 일이지만, 딸을 먹이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지만, 마지막 성공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실

교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가서 오시지 않아도 좋고, 만지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결론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우리들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 민족을 치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치유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 중헌논단 ◀

성탄의 현대적 의의

홍창민 목사
(제8교구·세례부 지도)

들어가는 말

1992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벌써 거리에는 자선남비가 등장하였고, 산타클로스는 진작부터 백화점에 출현하였다. 진열장에는 각색 화려한 성탄 카드가 진열되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크리스마스 케롤이 울려 퍼지고 있다. 사실 이맘 때가 되면 캔스레 사람들은 공연히 바빠지고 때로는 초조해 하면서 들뜨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다. 본래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말은 그리스도(Christ)와 축제(Festival)의 뜻을 가진 마스(Mass)의 복합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성탄절의 사건을 의식과 축제 뒤에 감추어 버렸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성탄절은 점점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외적인 축제만 부각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리스도가 생략되어진 사람들의 물결, 수많은 행사들, 또한 그리스도의 성탄이 그 본래의 의미를 망각한 채, 점점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환상으로 퇴색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서글프고 두려운 마음마저 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날 사는 현대의 기독교인들과 한국 교회에 있어서 진정한 성탄의 의의는 무엇인가?

1. 성경의 예언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가 단순히 축하하고 즐거워할 축제의 날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2천년 전에 태어났던 한 아기의 생일축하파티의 날이 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으로, 성경의 예언 성취라는 사실을 먼저 상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의 첫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 (창3:15)으로 계시되었고, 선지자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다(사7:14). 또한 선지자 미가는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다(미5:2).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혁 신앙을 도전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탄생이 비과학적이며 신화로 꾸며낸 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사건들을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며 섭리하신다. 특히 하나님은 그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

묘사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1:2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며,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연합으로서 이러한 성육신의 사건은 전 우주에 단 한번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탄이 가지는 근원적인 의의이다.

이제 그 분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

죄인을 구원키 위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으로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4:4) 여기서 그 아들은 인간의 보통출생법에 의해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분의 탄생은 구체적인 성경의 예언 성취이다.

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광야에 세워진 성막과 후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제 그 모형이 실제로 나타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 즉 성육신의 사건이다. 신앙성경은 이 성육신의 사건을 다음과같이

써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28:20)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Immanuel)의 신앙은 오늘날 사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요 축복이다. 동시에 이러한 임마누엘은 기독교인들과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은 밖에서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맨처음 알려졌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2:10-1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곧 복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만이 기뻐하

고 즐거워할 소식이 아니라 전우주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복음의 내용임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그렇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남자와 여자, 어른이나 아이, 심지어 복음의 황무지인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그리워하는 북녘땅의 내 동포에게까지도 전파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혼란과 분열, 시기와 분노, 갖가지 죄악과 재난들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성탄이 주는 의의라고 본다.

4.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에는 400여년 동안 암흑시대가

시지는 오늘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3:2)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성결을 회복하고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동일한 예언대로 영광스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 그 날을 준비하는 자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22:20)라고 고백하면서 그 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치는 말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 산타클로스, 성탄 장식(Tree)과 카드, 선물, 반짝이는 오색등, 징글벨, 케롤, 썰매와 루돌프 사슴코, 그리고 올나이트(all-night).... 사실 이런 것들은 성탄의 의미와 무관한 서양 문화의 산물일 뿐이다. 결국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 배경의 문화만 점점 부각시키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뒷전에 밀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마치 첫번 성탄 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말이다.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축제의 뒤안 길에 버려진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채색된 그리스도나 꾸며진 그리스도가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분의 말씀대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성탄을 보내면 곧 이 해가 지나갈 것이고, 다시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가오는 한 해는 더욱 더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도 희망찬 새해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새해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 가운데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3:16)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게 한다. 새해에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북녘땅에 있는 동포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소원한다.

첫번 성탄 전에 나타나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메

올해 초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 중 잊혀져 버린 많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기억되기 시작했다. 10여년 전 같이 술 자리를 하던 친구, 도박을 하던 친구, 불건전한 생활과 나태함에 젖어 있던 친구,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며 절하고 먹고 마시던 친척들, 가까이 있는 작년에 교통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던 동생 등 어둠의 굴혈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수첩에 기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주님과 약속했다.

"하나님, 금년이 지나면 만 11년의 기도 생활이 됩니다. 이제 작은 응답이라도 주세요!" 하면서 기도 하던 중 어느날 주일 저녁 거제도에서 바늘 찌를 곳조차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동생에게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 오늘 교회에 등록했어." 가슴이 메어져 오고 눈물이 흐르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 얼마 전, 추수감사절에 동생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다. 불완전한 몸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감사하고, 성실히 근무한 덕으로 그룹회장으로부터 사고 후에 상품과 상장을 받게 되었다면서 마치 어린이처럼 기뻐하며 자랑하는 말을 듣고, 80년 말, 처음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온통 기쁨과 감동으로 온

혜에 충만했던 내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몸소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에는 진실로 주가 기뻐하시는 전도만 하겠다고 다짐한 후 예수 사랑 큰 잔치 초청 전도를 시작했다.

급한 성격, 빠르면서도 사투리가 강한 말씨, 특히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세요!"라는 간구를 하면서 전도에 전력을 다했다.

이태원으로 혼자 전도를 나갔습니다. 때는 토요일 오후, 흑, 백 할것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비는 곳에서 전도지 하나로 일대일 전도를 하던 중 전도지를 받고난 한 분이 "이 사장님! 이 사업이 수입이 더 좋으세요?"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하기에 "출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쾌히 응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며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며 권유했더니 "같이 미치면 되겠습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분이 구원받고 전도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후로 그 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때의 그 감사와 은혜로 토요일 오후에는 줄곧 이태원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정성으로

생업에만 치중하다보니 신앙을 소홀히 했다면서 순순히 주의 품안으로 돌아와 충현의 가족으로 합쳐졌다.

천주교 신자인 B씨는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으면서도 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가정과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나열하기에 급급한, 처절한 인생 낙오자로서 가슴 속에 참 평화가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은 대화를 했다. 그는 드디어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제 개종까지 하게 되어 마음속 뜨거운 감사를 감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 자녀와 부인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중에 있다.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저는 약 30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대화식으로 서신을 보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지가 배달되었는가를 전화

로 확인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의 휴거설 불발, 정치와의 연관성, 현재 우리의 신앙적 자세 등 전도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전도하여 11월 1일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120명 정도, 이 중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3명, 아프리카에서 1명, 일본에서 2명, 믿던 사람들이 20여명, 새로운 결신자들이 80여명이다.

다수 사람들이 주의 전을 꺼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세상적인 가치 판단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인 것을 알았다.

충현교회가 시작하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 예수 사랑 큰 잔치, 성황리에 그 날의 의식은 마쳤으나 진정한 예수 사랑 큰 잔치는 지금부터 인간 사랑과 함께 거듭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새로 등록하거나 결신한 식구들이 성령 안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재목으로 자라나 제2, 제3의 예수 사랑 큰 잔치의 진행요원으로 봉사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

독자의 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치루고 나서

이진규 집사(제20교구)

출석하는 L성도는 3년 전부터 나와 거래하던 사람이다. 어쩌나 계산이 어둡고 결재가 질긴지 오늘 날까지도 완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써 수십 차례 그를 방문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그가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다. 보고 있던 그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에게 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어느날 예수님 한 번 믿어보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사실 부인은 모태 신앙이며, 자신도 신앙을 가졌었으나

● 구역예배 ● 성탄절 공과
(1992. 12. 25)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 본문 : 마태복음 1장 18절 ~ 25절 · 찬송 : 111장, 126장
· 요절 :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워집니다. 그 중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을 맞는 오늘 그 이름이 뜻하는 의미를 찾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임마누엘의 예언

예수님의 탄생보다 700년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는 구세주의 탄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성탄을 예언하였습니다.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이사야의 예언은 당시 불신앙적인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우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의 온 집, 즉 유다 온 백성을 위하여 주신 놀라운 "임마누엘의 선포"였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칼빈의 해석을 따를 때, 당시 "적의 연합 공격으로부터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속사적 사실이 요요하게 어우러져 선포되어 역사적으로 성취된 위대한 징조였습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700년 후에 정확히, 그리고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그 처녀"는 그 시대의 어떤 미지의 젊은 여자가 아닌,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로서 그는 '구원 사건'과 관계 있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 구주만이 인류의 참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목적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히2:17, 7:26)

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 뜻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혹은 '도성인신') 교리는 기독교 구원론의 기본 교리가 됩니다. 구주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 삼키려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구원이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이길 권능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시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밝히셨습니까?(요2:19,21)

◆ 적용

1.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중 아마 예수님이 나신 곳과같이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비천한 탄생은 메시아의 낮아지심의 출발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욱 낮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때에 주위의 "낮은 곳들"과 소외된 곳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집시다.

2. 성탄의 정신은 기쁨입니다. 구세주가 오신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현의 구역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지난 날들이 어떠하였든지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올해 마지막 금요일을 성탄절로 주신 주님께 찬양드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이 됩시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못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하여주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게하게 하옵소서."